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황인구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2002년 10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53호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

우량품종 육성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 등 중점 내용

국산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약용작물 재배농가가 고품질의 약용작물을 차별화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표로 △소비자 요구에 부합되는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약용작물 유통관련 제도 개선,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을 중점내용으로 한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소비자 요구에 부합되는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외국산과 차별화된 고기능성 품종과 생명공학 기술접목에 의한 특수성분 강화품종 등 우수약용작물 품종육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차원에서 약용작물 수요확대를 위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규정(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제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토양, 수질, 대기 등 약용작물 재배환경과 비료, 농약살포기준 등 재배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친환경인증제 및 생산자브랜드 제품과 연계해, 현실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GAP를 실시하는 농업인은 “농가자가규격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기타품목으로 돼 있는 한약재중 당귀, 황기, 구기자, 오미자, 천궁, 작약 등 농가가 많이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HSK 분류 코드 세분화도 추진 중이다.

수급조절제도도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확보 및 농가불안심리 해소 차원에서 수급조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



로 수급조절품목 수 감축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무엇보다 생산자 및 단체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GAP인증기관에 생산자단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국내산 우수 한약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계열화된 유통시스템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약용작물 단순가공(절단, 분말화)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와 유사한 약용작물 유통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

우 약용작물의 단순절단 가공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규제가 없고 관련업무 5년 이상자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이밖에도 약용작물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농림부 홈페이지 내에 믿을 수 있는 “국산 약용작물” 생산·유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품질보증현황·브랜드현황·유통정보 등 기본정보와 약용작물을 이용한 음식·건강음식조리방법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정희〉

서울농업무역센터 10월 문 연다

우리 수출 농산물을 한시 전시하고 수출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 전문 컨벤션센터가 서울 양재동에 이달 중순경 준공 될 예정이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aT센터는 수출홍보관과 무역정보센터, 대형 컨벤션홀을 갖춰 농수산물 관련 국제전시회를 갖게 된다.

농업전문 컨벤션센터는 전시장 16,053㎡, 수출상사관 11,048㎡, 세미나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2,727㎡로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우리 농산물 수출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농업무역센터』

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30개국 400여 업체가 참가하는 ‘2002 서울국제식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농수산물 수출업체, 농업벤처, 육류수출입 협회를 비롯한 농업단체 등이 입주한다. 현재 용산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도 15년만에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aT센터는 외국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농업분야의 영세 수출기업이 외국바이어를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농업수출의 첨단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사업 ‘뜰’ 갖추기

8~10종부터 우선 시범 시행

국산 한약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이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8월말 이사회 개최를 개회하고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포장재 및 간판, 기타 서식류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세부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브랜드화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항은 브랜드상품 생산업체 선정문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한약재 가공 포장작업 공정여건 및 국산한약재 구매여건, 생산자회원 확보정도, 공장시설

검사를 거친 후 적격업체로 인정된 회원업체에 한해 협회 브랜드 생산업체로 선정기로 했으며, 선정기준을 고려 도지회장 책임 하에 각 도지회별 1곳씩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생산농민명단과 생산품목(재배면적 및 재배품목, 예상 생산량 등)리스트 또는 물량 매입시 생산자 이름과 매입품목, 수량, 연락처 등 기재장부를 구비해야 하며 농약잔류 및 중금속 및 표백제 검사성적서를 필히 첨부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 사업 추진 품목은 국내 소비량과 생산량이 많은 품목 중 8~10개 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행사

생약협회, 국산한약재 전시 홍보 계획

우수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가 오는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농업무역센터에서 열린다.

농림부와 농협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 축제는 △생산자 소비자 만남의 장 마련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홍보 △유통업체에 홍보로 인한 직거래 확대를 위한 것이다.

한국생약협회도 이번 한마당 축제에 참여한다. 생협은 이번 행사에서 고품질의 국산 한약재 샘플은 물론이고 한약재 표본 및 사진자료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는 물론이고 대형 소비

업체에 우리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회가 추진중인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브랜드상품의 생산 공급체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외식업체, 수출업체 등 3백여개의 대형 실수요처와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3백5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우수농축산물 전시, 유통업체 직거래를 위한 상담, 농축산물 상품화관련 우수기자재 전시 및 물류시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지면안내

- 유통시세정보 4면
- 중국약재 시장동향 4면
- 재배기술정보 5면
- 제100차 중앙이사회 이모저모 7면